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의 맥락과 기반에 대한 질문

휴부대생활기술네트워크 매니저 김성원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연구원)

우리는 유럽 RES의 놀라운 성과와 사례에 대하여 귀가 따갑게 들어왔다. 오늘도 유럽 RES의 현재를 경청하면서 부러움과 아쉬움을 동시에 갖게 된다. 성공사례의 벤치마킹은 RES 분야가 아니더라도 종종 '현재의 성과 또는 성공' 이전의 과정과 사회적 맥락을 간과하거나 우리사회의 현재적 조건과 환경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오늘 다시 유럽 RES 협동조합의 성공사례를 들으며 몇 가지 추측과 질문을 하게 된다.

혹시 우리는 첫째, 유럽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오랜 경험을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둘째, 현대적인 최첨단 RES 이전 유럽 각지의 낮은 수준의 자연에너지 이용 경험의 수준과 영향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어 덴마크의 풍력발전 이전의 풍력에너지의 집적 이용,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이전 오스트리아의 화목난로와 화목보일러 이용의 경험과 영향과 같은 것이다. 세번째, 유럽 각국의 RES 관련 기술적 수준, 특히 지역적으로 분산된 기술적 수준 더 나아가 시민과학으로서 시민사회의 기술적 기반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네번째 분권적인 지역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전통과 더불어 다섯번째 유럽의 지역공동체와 지역공동체의 시민적 자율성, 역동성은 RES 확산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 각국 정부의 에너지 가격 또는 시장정책과 제도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반면, 우리사회의 상태는 어떠한가. 우선 우리는 관제화된 농협 외에 협동조합의 경험은 매우 짧다. 최근 협동조합법의 발효와 함께 협동조합들이 우후죽순으로 증가하였으나 말 그대로 첫발을 내딛었을 뿐이다. 현재 급증한 협동조합의 향후 성패는 차치하고 충분한 협동조합의 성숙된 경험은 분명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 두번째 낮은 수준의 자연에너지 경험은 단절되었거나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히 축소되었다. 기술의 역사성 또는 기술이용의 역사성이란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첨단 기술은 갑자기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갑자기 이용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시민의 기술수용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과도한 중앙집중적인 정치사회문화, 과도한 지원의존, 과도한 관 주도 이러한 것들 역시 넘어서야 할 과제다. 전남 장흥의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본인으로선 지역공동체가 상당히 주변화되었고, 지역공동체의 시민사회가 미성숙, 미발달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단지 RES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의 재구성과 RES 협동조합은 따로 분리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나 가격정책의 문제점을 따로 말할 필요가 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할 것인가? 또는 동시에 무엇도 해야 할 것인가? 질문을 해본다. 우선 적정기술을 이용한 낮은 기술 수준의 자연에너지 이용 경험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적 경험, 기술의 역사성 이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로컬(Local)! 바로 지역의 기술적 능력, 기술집단이란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고민해야되지 않을까. 유럽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규모 프로젝트를 고민해야 본다. 지역에서 정말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아주 아주 작은 프로젝트를 시도해봐야 한다. 스몰(Small)이 중요하다. 로컬 스몰(Local Small)이다. 이를 위해서 우린 대중의 자발적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신뢰하면서 로컬 스몰 RES 또는 더 낮은 수준의 기술적 경험을 위한 공동의 기술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네트워크도 그 중의 하나다. 기술정보 사이트도 그 중의 하나다.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기술정보, 기술적 도구를 제공해야 한다. 이점에서 온라인의 몇몇 카페와 전환기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험은 소중하다.

동시에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조금 나아간 이야기일 것 같다. 지역공동체 시민사회에 대하여 도시에 계신 분들은 시 차원에서 사고한다. 도 차원에서는 역시 도라는 행정단위를 놓고 사고한다. 지역에선 군을 기본으로 사고한다. 아직 거친 생각이지만 지역자치, 공동체의 정치사회문화적 경험과 시민사회의 재구성은 동, 면 단위까지 내려가야 한다. 유럽의 정치적 혁신적인 도시라 일컫는 곳이나 RES 성공사례로 언급하는 도시들은 3~5 천 명 인구 수준의 소도시가 많다. 우리나라 시골의 면 수준 인구다. 이점을 우린 종종 놓친다. 유럽의 그러한 소도시는 자율성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면은 자율성이 없다. 행정적인 측면이든 시민사회적 측면이든 마찬가지다.

민주적 정치경험이든 시민사회의 형성이든 RES의 보급 확산이든 '직접성'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 동안 한국사회는 급격한 중앙집중화 산업화 과정에서 '간접성'이 확대된 사회다. 유럽의 RES 협동조합의 확산은 단지 에너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접성'을 강화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의 '현재적 조건'은 무엇인가?

로컬의 직접성, 로컬의 기술, 지역 시민사회 등 차원에서 다시 보다 진지하게
질문해보아야 할 때이다.